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의 관계 -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

하 정 희<sup>†</sup>

한양사이버대학교

본 연구는 완벽주의의 대인관계적 측면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이들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 217명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하위변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간에 부분적으로 관련성을 나타내었으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변인들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황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변인인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변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된 완벽주의적 성격 특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아존중감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주고자 노력하는 특성이 강한 사람들이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자아존중감

<sup>†</sup> 교신저자 : 하정희,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133-791)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Tel : 02-2290-0364, Email : hajung366@hanmail.net

최근 몇몇 학자들이 개인의 성격을 크게 대인관계적 측면(interpersonal aspects)을 반영하는 표현적 측면(expressive aspect)과 특성적 측면(trait aspects)을 반영하는 내용적 측면(content related aspect)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제기한 이래(Buss & Finn, 1987; Paulhus & Martin, 1987), 한 개인의 심리적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격의 특성적 측면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적인 측면까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이 제기되었다(Wachtel, 1994). 즉, 성격의 특성적 측면과 같은 정적인 측면(static aspect)만으로는 심리적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성격의 대인 관계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완벽주의에 적용시켜 볼 때, Hewitt 등(2003)은 기존의 특성적 완벽주의만으로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유지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면서 완벽주의의 표현적, 또는 대인관계적 측면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남들에게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Hewitt et al., 2003) 타인에게 완벽하게 지각된다고 생각하는 행동은 촉진하고 불완전하게 지각된다고 생각되는 행동은 은폐하려는 특성이 있다. Hewitt 등(2003)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세 가지 하위요인 즉,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 PSP)’,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Nondisplay of Imperfection, NDP)’, ‘불완전함 은폐 노력-언어적(Nondisclosure of Imperfection, NDC)’으로 이루어져있다고 설명한다.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자신의 완벽함을 공적으로 분명하게 나타

내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러한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유능하고 도덕적이며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성공한 모습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길 바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완벽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고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측면은 은폐하려고 한다. 이러한 시도는 남들로부터 호의적인 평판이나 존경 및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실수 등이 공적인 상황에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은 타인에게 완벽한 인상을 제시할 수 있는 효능감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Horney(1950)는 이 측면이 높은 사람들은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비판에 예민해져 있으므로 남들이 반대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불완전한 상황을 과도하게 피하게 된다고 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마지막 차원인 ‘불완전함 은폐 노력-언어적’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실수나 결함들을 남들 앞에서 인정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완벽주의자들은 대인관계 내에서 타인에게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타인에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걱정을 말로 표현하려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Weisinger & Lobsenz, 1981). 이와 비슷하게 Flett, Hewitt과 DeRosa(1996)도 부정적인 평가를 염려하는 완벽주의자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좀처럼 말로 표현하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그들이 지각한 결점을 인정해야하거나 의논해야 할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특성으로 인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우울, 불안, 성격장

에, 섭식장애, 제한된 정서 등의 광범위한 부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되며(Flett, Madorsky, Hewitt, & Heisel, 2002), 부적응의 정도는 일반적인 부적응적 특성에서부터 정신병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심리적인 부적응 및 심리적 고통 간에 관련성이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완벽주의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심리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Henning & Shaw, 2000; Hewitt et al, 2003; Hewitt et al, 2007; Hewitt & Flett, 2002; Leventhal, 2007).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고통이나 실수, 단점, 무능감 등과 같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치료자에게 보여주기가 어려워하기 때문에(Ey, Henning, & Shaw, 2000; Leventhal, 2007) 심리치료에 적절하게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한 개인이 임상평가나 심리치료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치료자와 치료동맹을 맺고자 정직하게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고 자신의 문제를 치료자와 적절히 다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Kahn, Achter, Shambaugh(2001) 역시 정신병리를 가진 환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가져오는 정보를 많이 노출할수록 치료의 종결 시에 증상이 많이 완화되고 더 적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한 바 있으며, Norcross(2002)도 자기노출이 심리치료에서 치료동맹을 맺을 때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비하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노출을 자신의 결점을 노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Leventhal, 2007), 이들은 전문적인 도움 요청에 부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ewitt과

Flett(2002)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차원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심리치료를 받고서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지각함을 발견한 바 있다. 또한 자기 은폐적인 특성이 강한 개인들은 결국에 가서는 치료를 받고자 하지만, 더 많이 불편해하고 고통 받으며 심리치료에 대한 기대와 평가 모두 부정적으로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Hewitt & Flett, 2002; Hewitt et al., 2007).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도움추구를 하지 않거나 혹은 도움추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에 대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인지적, 정서적, 각성의 특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의 인지적 특성을 살펴보면, Frost 등(1995, 1997)은 완벽주의적인 개인은 그들의 실수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실수를 비밀로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Mill과 Blankstein(2000)은 완벽주의적인 개인이 자신의 부진한 학업 성취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여 타인에게 학업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두려워함을 밝힌 바 있다. 상담 장면에서도 비슷하게 Leventhal(2007)은 자신의 사적 정보를 상담자에게 노출하는 것은 자기 은폐 성향이 강한 완벽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결점을 노출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상담 시간에 자신들의 가장 깊은 생각들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상담을 두려워한다고 하였다(Leventhal, 2007). 또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치료자에게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며 노력하지만, 아직 그들이 치료자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스스로 명확하지 않으므로 치료자가 자신을 싫어할 지도 모른다는 부정적

인 견해를 가질 수 있다(Hewitt et al, 2003). 이들은 상황을 위협적으로 평가하고 자기 보호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고(Alden & Bieling, 1998) 이로 인해 또 다시 치료 상황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정서적 특성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치료 후 사회적 상황에서 변화가능한지에 대해 의심을 가지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불안함을 느끼기 쉽다. 특히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불완전함 은폐-행동적’과 ‘불완전함 은폐-언어적’ 차원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불안과 사회적 수행불안과 관련되어 있다(Hewitt et al, 2003). 이들의 각성에 대한 특성을 볼 때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의 불완전함을 보여줘야 하는 심리치료 상황에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숨기면서 자동적으로 흥분 등과 같은 신체적 특성을 나타내는 바(Hewitt et al, 2008) 이는 심리치료에 대한 불편함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세 가지 하위차원 별로 전문적 도움추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으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나 이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전문적 도움요청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행동결과에 대한

다양한 심리적 기제를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기제의 하나로서 ‘자아존중감’을 상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Hewitt, Flett, & Ediger, 1995).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Rosenberg, 1965) 주관적 안녕감에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Schimmack & Diener, 200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타인들에게 되도록 완벽한 자아 이미지를 보이고 불완전함을 드러내지 않는데,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상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도 있고(Crocker & Wolfe, 2001; Hewitt & Flett, 1993) 또는 타인의 수용과 존중감을 얻기 위해서일 수 있다(Leary, Tambor, Terdal, & Downs, 1995).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들의 욕구는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숨기고 긍정적인 모습만을 과장되게 나타내도록 이들을 동기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이 남들로부터 결점이 없게 비추어질 때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소속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Hewitt et al, 1998), 이들의 자아존중감은 타인의 비난이나 소외를 피함으로서 더 강해질 수 있다(Leary & Kowalski, 1990).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차원 가운데 특히 은폐적 차원과 관련된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및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은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는 불완전함이나 결점을 행동과 언어로서 회피하고자 하며 자신이 보다 완벽한 모습을 제시해야만 타인에게 수용된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이 두 차원이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데(Hewitt, Flett, & Ediger, 1995; Kiesler, 1996) 이들은 더욱 더 완벽한 모습으로 자신을 제시하고 불완전함을 숨김으로써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거나 높이려고 노력하며(Crocker & Wolfe, 2001; Schlenker, 1980), 그들 스스로 결점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자아존중감이 고양되면서 더욱 더 존경받고 소속되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Hewitt et al, 1998).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타인에게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아를 형성하고자 노력한 결과로써 스스로는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으나, Leary와 Kowalski(1990)가 지적하였듯이 오히려 자아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과장되게 지각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높은 자아존중감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Sherry 등(2007)은 부적응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타인들에게 완벽하게 보이기 위하여 자신의 불확실한 자아감을 안정된 것으로 지각하고자 노력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안정적인 통합된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오로지 그들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와 그들이 타인에게 수용되는지의 여부에 크게 의존하므로(Blatt & Blass, 1992), 이들이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으로 수용되면서 그것으로 인해 안정감을 느끼면 자아존중감을 크게 느끼게 되며 이로 인해 전문적 도움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이 한

개인의 적응에 무조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완벽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높은 자아존중감은 Rice, Ashby, Slaney(1998)가 지적한 바와 같이 완벽주의의 적응적인 특성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아닐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A, B 대학과 경기도 C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1학년 부터 4학년까지의 학부생 239명(남자 133명(61.3%), 여자 69명(31.8%), 무응답 15명(6.9%))을 대상으로 2009년 3월에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다. 실시 이전에 그 과목을 강의하는 강사와 강의를 듣는 참여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동의를 구한 후 설문 조사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 교육을 하였다. 아울러 설문에 대한 응답은 연구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주지시켰다. 응답시간은 학생들이 정확하게 응답하도록 충분한 시간(약 30분)을 주었으며, 응답한 질문지는 이들이 응답을 마친

후 강사의 지시 하에 한 번에 수거하였다. 설문지는 총 236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응답이 누락된 19부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217부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 측정도구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

Hewitt 등(2003)이 개발한 척도로서 총 27문항이며 7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세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 PSP)’,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Nondisplay of Imperfection, NDP)’,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Nondisclosure of Imperfection, NDC)’이 여기에 포함된다.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문항의 예를 들어 보면, ‘나는 늘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내가 지닌 실제 능력보다 더 유능하게 보이고 싶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은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된다면 끄떡할 것이다.’ 등이,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완벽하지 않다고 말해도 괜찮다.’, ‘나는 늘 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한다.’ 등의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번안과정에서 본 연구자와 박사과정생 1명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거친 후, 영어권에 5년 이상 거주한 심리학 전공 박사 1명이 한국어로 번역된 문항을 영어로 역번역(back translation) 하여 차이가 있는 문항에 대해 여러 번 재수정

작업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박사과정생 4인의 감수를 받아 문항을 최종 결정한 후 타당화 작업을 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문항은 17 문항이며 점수분포는 17점에서 119점까지 나타나고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변인으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 PSP)’ 8문항,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Nondisplay of Imperfection, NDP)’ 6문항,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Nondisclosure of Imperfection, NDC)’ 3문항이 포함된다. 원칙도에서도 세 가지 하위요인의 문항 수 가운데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의 차원의 문항수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는 문항 제작 시에 이 차원의 문항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차원의 문항들이 불완전함을 은폐하기 위한 특성뿐만 아니라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차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항수가 더 많게 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Hewitt et al, 2003).

Hewitt 등(2003)의 척도개발 연구에서는 다양한 집단 별로 신뢰도 계수를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이 .84~.89,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은 .83~.91,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이 .72~.88로 나타났다. 배은지(2008)의 연구에서 나타난 문항 전체의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80이었고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81,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7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전체의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85로 나타났고,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의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각각 .89, .76, .59로 나타났다.

###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전병제(197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 존중 정도의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병제 연구에서의 이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85였고, 본 논문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83으로 나타났다.

###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척도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척도(Attitudes Towards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 ATSPPH)로 Fisher와 Turner(1970)에 의해 개발된 것이며, 본 연구는 유성경(1997)이 번안한 것을 신연희(2004)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데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척도는 네 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는데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도움에 대한 필요성 인식(8개 문항),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문제를 개방하는 개방성(7개 문항),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 낙인찍히는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낙인에 대한 내인성(5개 문항),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신뢰(9개 문항)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원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가 전체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3으로 나타났고 하위차원의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위에 제시된 순서대로 .67, .70, .62, .74였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본 질문지를 사용한 김주미와 유성경(2002)의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Cronbach  $\alpha$ )가 .66, 신연희(2004)의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Cronbach  $\alpha$ )가 .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76이었으며, 하위차원의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위에 제시된 차례대로 .70, .73, .74, .72로 나타났다.

### 통계 분석

SPSS를 이용하여 전체변인들 간의 상관을 구하였으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적용한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홍세희, 2007). 즉,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아존중감을 하위변인 별로 1단계에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이 변인들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주효과(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아존중감)를 통제 한 후에도 종속변인(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대한 상호작용 변수(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아존중감)의 효과가 유의할 때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결 과

###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아존중감,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계수를 구하여 그 결과를 표 1에

표 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아존중감,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의 상관계수(r)

변인	1	2	3	4	5	6	7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1.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2.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44***					
	3.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16*	.24***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4. 자아존중감	-.03	-.30***	-.24***			
	5. 도움필요성인식	-.00	-.02	-.18**	-.09		
	6. 낙인내인성	-.20**	-.12	-.09	.14*	.30***	
	7. 자기문제 개방성	-.22**	-.23**	-.37***	.20**	.29***	.27***
	8. 전문가에 대한 신뢰	.07	-.02	-.16*	.14*	.53***	.33***

\*  $p < .05$ , \*\*  $p < .01$ , \*\*\*  $p < .001$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변인 가운데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과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부적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변인 가운데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하위변인인 ‘낙인에 대한 내인성’, ‘자기문제에 대한 개방성’과 유의한 부적 관련성을 나타내었고,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은 ‘자

기문제에 대한 개방성’과 유의한 부적 관련성을 보였으며,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은 ‘도움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기문제에 대한 개방성’, ‘전문가에 대한 신뢰’와 유의한 부적 관련성을 나타냄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의 관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하위변인들 간에

표 2.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대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하위변인 별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 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R <sup>2</sup>
		B	Std.Error	Beta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03	.07	-.03	-.38	.09*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08	.11	-.05	-.68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72	.19	-.26	-3.82*	

\*  $p < .001$



부분적으로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대하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 변인별로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enter 방식으로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는 다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변인의 영향력이 통제된 조건 하에서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에 의해 유의하게 예언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t(207)=-3.82, p<.001$ ).

**자아존중감에 따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변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과 자아존중감을 각각 1단계에 투입하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변인별로 자아존중감과의 상호작용변수를 2단계에 투입하였고, 종속변인

으로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를 투입하였다. 따라서 주효과를 통제 한 후에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지를 살펴본 결과,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하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변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자아존중감’과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다른 하위변인인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및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과 ‘자아존중감’과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므로 유의한 결과만을 표 3과 그림 2에 제시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을 살펴보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대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변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효과가 주효과를 통제 한 후에도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beta=-.14, p<.05$ ),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의 관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그림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자아

표 3.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대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자아존중감,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 자아존중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1단계( $\beta$ )	2단계( $\beta$ )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10	-.12
	자아존중감	-.12	.14*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 자아존중감		-.14*
	$\Delta R^2$		.02
	$R^2$	.02	.04
	F	2.50	2.90*

\*  $p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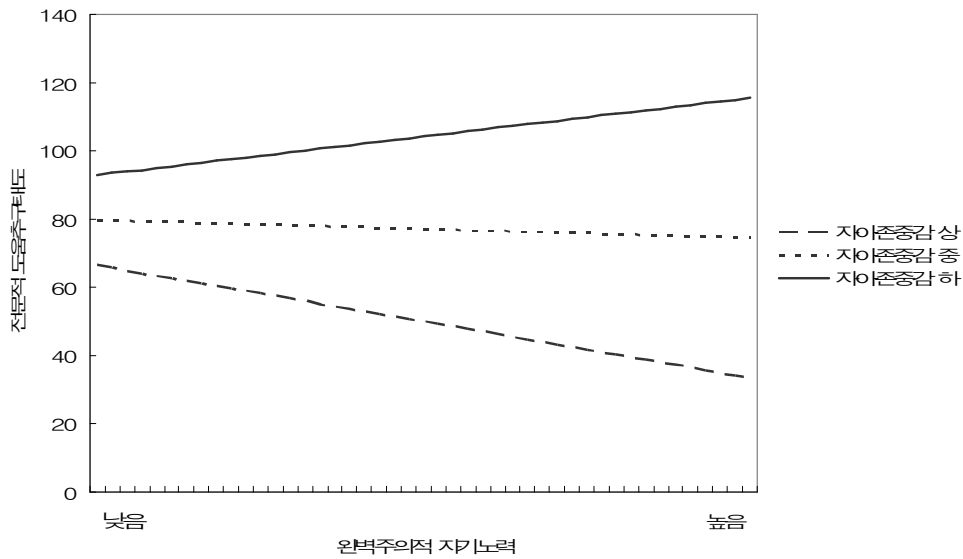


그림 2.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존중감 점수의 +SD, Mean, -SD를 기준으로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회귀선을 구하여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수준을 살펴보았다. 이 결과를 그림 2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b=-0.75, t(213)=0.79, n.s$ )와 자아존중감이 중간( $b=-0.12, t(213)=0.19, n.s$ )인 경우에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간에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에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간에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b=0.52, t(213)=2.15, p<.05$ ).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수준이 클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에 전문적 도움추구를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완벽주의의 대인관계적 측면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이들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려 수행되었다.

주된 연구결과와 이에 따른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전문적 도움요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간에 부분적으로 관련성을 나타내었는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변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하위변인인 ‘낙인에 대한 내인성’과 ‘자기문제에 대한 개방성’과 부적 관련성을 나타내었고,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은 ‘자기문제에 대한 개방성’과 역시 부적 관련성을 보였으며,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

적'은 '도움에 대한 필요성 인식', '자기문제에 대한 개방성', '전문가에 대한 신뢰'와 부적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모든 하위변인들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하위변인 가운데 특히 '자기문제에 대한 개방성'과 공통적으로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변인 가운데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대부분의 하위변인과 관련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다른 하위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 한 후에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의 변인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측면들이 대체로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해 부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Hewitt et al, 2007)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즉, 자신의 완벽한 모습만을 보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나 완벽한 모습만을 보이기 위해 불완전함을 숨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나 모두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기 어려워함으로써 전문적인 도움추구를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불완전함을 공적인 상황에서 언어화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특성이 강한 사람들은 전문적 도움추구를 하지 않는데, 자신의 문제를 개방하지 않는 심리적 특성 역시 '자기은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불완전함 은폐-언어적' 차원이 높은 사람들은 치료자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발견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치료 상황을 더 위협적으로 평가하기 쉬우며

(Alden & Bieling, 1998), 이로 인해 자기 보호적인 방식의 하나로서 자신을 말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은폐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 은폐 경향이 높은 사람은 자기 은폐 성향이 낮은 사람보다 상담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지각하지만 상담을 추구하기보다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고(Ceprda-Benito & Short, 1998; 신연희, 2004 재인용),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있어서도 부정적일 수 있다(장진이, 2001; Kelly & Achter, 1995, 신연희, 2004 재인용).

둘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변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앞선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변인 가운데, 특히 자신의 완벽함을 공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이 강한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에 전문적인 도움추구를 많이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차원들은 대체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된다. 그러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 차원 가운데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타인에 대한 민감성과 경계심을 갖더라도 자신의 단점을 숨기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완벽성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대인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높이려고 시도하는 특성이 있다. 이들은 항상 유능하고 도덕적이며 능력이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기 바라므로 스스로도 그러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으며 (Hewitt et al, 2003) 대인관계에서 어느 정도

적응적일 수도 있다. Sherry 등(2007) 또한 부적응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타인들에게 완벽하게 보이고자 자신의 불확실한 자아감을 안정되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으로 수용되면서 안정감을 느낄 때 자아존중감을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반면에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으로 수용되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이 바라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경우에 낮은 자아존중감을 느낄 것이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차원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대인관계 상에서 분명 부정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특성 또한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특성이 강한 사람들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아 통제적인 방식으로 획득한 자아존중감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기제로만 사용되며 전문적인 도움요청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이들에게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경우는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공적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실패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수용되기를 강하게 원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좌절될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을 방어하며 도움요청을 하지 않기 보다는 전문적인 도움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Rice 등(1998)도 완벽주의자들의 높은 자아존중감이 그들의 적응성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아니라고 한 바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보다는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에 오히려 이들의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존중감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성격변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자신의 완벽함을 드러내려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특성과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도움추구 태도에 대하여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본 연구의 의의 및 상담 및 심리치료에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 관련된성을 살펴봄으로서 대인관계 가운데에서도 특히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된 완벽주의적 성격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이에 상담이나 심리치료 장면에서 치료자는 완벽한 모습만을 보이고자 자신을 은폐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이들이 자신의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고 힘든 과정인지, 치료자에게 인정받고 싶지만 자신의 불완전함을 드러내기 힘들어서 도움요청을 하지 못했던 마음 등을 치료 과정에서 충분히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심리치료 받는 것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낙인찍힐 지도 모른다는 이들의 두려움을 치료 초기에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아존중감을 함께 살펴봄으로서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주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에 심리치료 장면에서는 타인에게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특성이 강한 사람들이 타인의 수용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대로 수용됨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음으로서 겉으로 보이는 결과는 비슷할 수 있지만, 진정한 자아존중감의 의미는 한 개인이 성격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함께 고려할 때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완벽한 모습을 타인에게 성공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을 크게 느낄 것이므로 전문적 도움추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낮아짐으로써 전문적 도움추구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완벽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할 경우에 치료자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자아존중감이 현재 극도로 낮아진 상태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며,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우선적으로 주력하기 보다는 성격적인 부적응 측면을 먼저 다루어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본 연구의 결과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변인 가운데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대체로 부적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가 미국과는 다른 한국적 현실에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부정적이지 않은 일부 특성을 보여주는 것인지 혹은 본 연구의 대학생 설문대상자들의 특성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추후 이와 관련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낮은 상관( $r=.20\sim.40$ )을 나타내며 이를 토대로 중다회귀 분석 및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 조

절효과 결과 또한 설명력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 효과를 해석하는 데에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는 완벽주의와 더불어 완벽주의의 특성을 설명해줄 수 있는 다차원적 개념으로서, 완벽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변인이지만 아직 국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추후 이 분야에 관련된 보다 세부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주미, 유성경 (2002).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화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 991-1002.

신연희 (2004).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서 접근 요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진이 (2001). 자기은폐와 정서표현 성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 그리고 도움추구 태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병제 (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1), 107-130.

홍세희 (2007). 구조 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비간행본).

Alden, L. E., & Bieling, P. (1998).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the pursuit of safety.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6, 53-64.

Blatt, S., & Blass, R. (1992). Relatedness and self-definition. In J. Barron, M. Eagle, & D. Wolitsky (Eds.), *The interface of psychoanalysis and psychology* (pp. 399-428).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uss, A. H., & Finn, S. E. (1987).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trai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2), 432-444.
- Ceprda-Benito, A., & Short, P. (1998). Self-concealment, avoidance of psychological services, and perceived likelihood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58-64.
- Crocker, J., & Wolfe, C. T. (2001). Contingencies of self-worth. *Psychological Review*, 108, 593-623.
- Ey, S., Henning, D. L., & Shaw, D. L. (2000). Attitudes and factors related to seeking mental health treatment among medical and dental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14(3), 23-39.
- Fisher, E. H., & Turner, J. L. (1970). Orientations to seeking professional help: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n attitude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 451-462.
- Flett, G. L., Hewitt, P. L., & DeRosa, T. (1996). Dimensions of perfectionism, psychosocial adjustment, and social skills. *Personality and Individuals*, 20, 143-150.
- Flett, G. L., Madorsky, D., Hewitt, P. L., & Heisel, M. J. (2002). Perfectionism cognitions, ru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20, 31-45.
- Hewitt, P. L., & Flett, G. L. (2002). Perfectionism and stress processes in psychopathology.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255-28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ewitt, P. L., & Flett, G. L. (2003).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maladjustme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Hewitt, P. L., Flett, G. L., & Ediger, E. (1995). Perfectionism traits an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n eating disorder attitudes, characteristics, and symptom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8, 317-326.
- Hewitt, P. L., & Flett, G. L., Sherry, S. B., Habke, M., Parkin, M., Lam, R. W., Lam, R. W., McMurtry, B., Ediger, E., Fairlie, P., & Stein, M. B. (2003). The interpersonal expression of perfectio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303-1325.
- Hewitt, P. L., Flynn, C. A., Mikhail, S., Sherry, S. B., & Flett, G. L. (2007). *Evaluation of brief psychodynamic/interpersonal group therapy for perfectionism*. Manuscript in preparation.
- Hewitt, P. L., Habke, M., Lee-Baggley, D. L., Sherry, S. B., & Flett, G. L. (2008). The impa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on the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ological experience of a clinical interview. *Psychiatry*, 71(2), 93-122.
- Hewitt, P. L., Lee-Baggley, D. L., Flett, G. L., Blasberg, J., Han, H., & Tomlin, M. (2007). *Perfectionism and seeking help for psychological difficulties*. Manuscript in preparation.
- Horney, K. (1950). *Neurosis and human growth*. New York: Norton.

- Kahn, J. H., Achter, J. A., & Shambaugh, E. J. (2001). Client distress disclosure, characteristics at intake, and outcome in brief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2), 203-211.
- Kelly, A. E., & Achter, J. A. (1995). Self-concealment and attitudes towards counseling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1), 40-46.
- Kiesler, D. (1996). *Contemporary interpersonal theory and research: Personality, psychopathology, and psychotherapy*. New York: Willy.
- Leary, M. R., & Kowalski, R. M. (1990). Impression management: A literature review and two-compon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 34-47.
- Leary, M. R., Tambor, E. S., Terdal, S. K., & Downs, D. L. (1995).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monitor: The sociometer: The sociometer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18-530.
- Leventhal, N. (2007). *Perfectionism, self-concealment, and attitudes toward mental health trea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 Mills, J., & Blankstein, K. R. (2000). Perfectionism, intrinsic vs. extrinsic motivation, and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 1191-1204.
- Norcross, J. C. (2002). *Psychotherapy Relationships That Work: Therapist Contributions and Responsiveness to Patien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aulhus, D. L., & Martin, C. L. (1987).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capabilit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354-365.
- Rice, K. G., Ashby, J. S., & Slaney, R. B. (1998). Self-esteem as a mediator between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301-31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In M. Rosenberg (Eds.), *Social psychology of the self-concep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immack, U., & Diener, E. (2003). Predictive validity of explicit and implicit self-esteem for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 100-106.
- Schlenker, B. R. (1980). *Impression management*. Monterey, CA: Brooks/Cole.
- Sherry, S. B., Hewitt, P. L., Flett, G. L., Lee-Baggle, D. L., & Hall, P. A. (2007). Trait perfectionism an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n personality patholo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 477-490.
- Wachtel, P. L. (1994). Cyclical processes in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51-54.
- Weisinger, H., & Lobsenz, N. (1981). *Nobody's perfect*. New York: Warner Books.

원고접수일 : 2009. 11. 25

수정원고접수일 : 2010. 04. 01

게재결정일 : 2010. 05. 15

##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Professional Help Seeking Attitude: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 Esteem**

**Jung Hee Ha**

Hanyang Cyber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wo-folds; 1)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the attitudes towards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2) to examine the moderation effects of self esteem on these relations. For this study, 217 college students were recruited.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everal sub-factors of the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sub-factors of the attitudes towards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In particular, one of sub-factors of the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nondisclosure of imperfection: language (NDC-L)', yielded a negative effect on attitudes towards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controlling the effects of other subscales. Second, self-esteem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a sub-factor of the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PSP)' and attitudes towards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professional help seeking attitude, self-esteem